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b>보 도 참 고 자 료</b>			
	2019. 6. 18. / (총 4매)			
배 포 일				
위기분석국제협력과	과 장	이 선 규	전 화	043-719-7550
	담 당 자	박 은 정		043-719-7553
결핵에이즈관리과	과 장	공 인 식		043-719-7310
	담 당 자	차 정 옥		043-719-7917

## 국제의약품구매기구 대표단 질병관리본부 방문

◇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등 시설 참관 및 세계 3대 주요 질병(결핵, 에이즈, 말라리아)의 중기전략, 신규사업(항생제내성, 소외열대질환)에 대해 논의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은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사무총장 및 이사회 의장단\*\*이 사업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6월 18일(화) 질병관리본부에 방문한다고 전했다.

\*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는 결핵, 에이즈, 말라리아 등의 의약품 시장 개입을 통해 약가 인하, 품질 향상, 기술혁신, 필요한 시점에 의약품 공급을 유도하는 국제기구

\* 2006년 9월 프랑스, 칠레, 영국, 브라질, 노르웨이 주도로 출범

\* 한국은 아시아 유일의 이사국으로 2006년 11월부터 집행이사국으로 활동 중

\*\* UNITAID 이사회 현의장 Marta Mauras(前 칠레 외교부대사), 이사회 차기의장 Marisol Touraine(前 프랑스 보건부 장관), 사무국 사무총장 Lelio Marmora, 대외협력국장 Mauricio Cysne 등

○ 본 대표단은 외교부와 질병관리본부가 공동주최하는 국제의약품구매기구 제32차 집행이사회('19.6.19.~6.20. 서울 플라자호텔) 참석을 계기로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하여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질병관리본부장과의

면담을 통해 국제의약품구매기구의 투자계획과 신규 사업 추진에 대해 한국-UNITAID 간 협력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 이번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집행이사회에서는 국제의약품구매기구의 중기 전략\*의 확장성과 혁신성을 위해 기존 3대 질병 외에 항생제내성 및 소외열대질환 등 신규 사업으로의 확대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 “전 세계 건강 대응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다 나은 건강 제품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5개년)의 중기 전략을 수립

- 국제의약품구매기구 렐리오 마모라 사무총장은 “이번 방문으로 질병퇴치를 위한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을 이해하고, 전 세계 보건혁신을 촉진하는 국제의약품구매기구와 한국 질병관리본부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분야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다.

-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한국은 국제의약품구매기구의 중점 사업 대상인 결핵, 에이즈, 말라리아로 인한 질병 부담이 높은 나라이며, 3대 질병뿐 아니라 항생제 내성 등을 비롯하여 향후 치명적인 감염병을 대응하기 위해 국제의약품구매기구의 혁신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이번 이사회를 통해 향후 국제의약품구매기구의 이행되는 사업에서 한국의 혁신적인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부여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언급했다.

- <붙임> 1. 국제의약품구매기구 제32차 이사회 개요  
2. UNITAID 방문단 주요이력

**붙임 1**

**국제의약품구매기구 제 32차 이사회 개요**

□ **배경 및 목적**

- 제30차 집행이사회('18.12월)에서, 제32차 집행이사회('19.6.19.-6.20./서울)\*  
한국개최를 결정
  - \* 연간 2차례 개최: '18년 상반기(프랑스), '18년 하반기(모로코)
- 한국은 아시아 유일의 이사국으로 '06.11월부터 집행이사국으로 활동  
하여 집행이사회 개최를 통해 글로벌 보건기구 내 국제협력\* 강화
  - \* 아시아로의 기관협력 확대, 한국의료산업계의 참여 확대

**< UNITAID 개요 >**

- ◆ (개요) 3대 질환(HIV/AIDS, 결핵, 말라리아) 의약품 시장 개입을 통해 약가  
인하, 품질 향상, 기술혁신, 적시 안정적 공급을 유도하는 국제기구
  - \* '06.9월 프랑스, 칠레, 영국, 브라질, 노르웨이 주도로 출범
- ◆ (한국기여) ('08~'12) 매년 700만불, ('13~'18) 매년 400만불 기여, 외교부에  
의하면('19~'21)년도에는 연 500만불로 기여금 확대 확정 ('18.11월)
- ◆ (한국참여) 외교부(개발협력국장)가 이사직, 질병관리본부(질병예방센터장)가  
교체이사로 활동, 집행이사회 산하 정책전략위원회 참여

□ **개최 개요**

- (일시 및 장소) '19. 6.19(수)- 6.20(목), 서울 플라자호텔
  - \* 주관 및 주최 : UNITAID/ 외교부, 질병관리본부
- (참석자) 한국, 프랑스, 칠레, 영국, 브라질, 노르웨이 등 이사국과  
WHO, 글로벌펀드, GAVI 등 국제기구 및 NGO 등 80여명
- (주요의제) 2017-2021 전략 중간점검, 정책전략 및 재정책임위원회  
보고, 신규 투자분야 모색\*(샤가스 질환), 신입 의장 선출
  - \* △기존 3대 질환에서 말라리아-삼일열, 항생제내성, 에이즈합병증, 만성/소외  
질환으로 확대, △기술적으로 블록체인, 공급망 관리, 장기효과 기술 활용

**붙임 2**

**국제약품구매기구 이사회 의장 및 사무총장 약력**

□ **UNITAID 이사회 현의장**

- (성명) Marta Maurás(마르타 마우라스)
- (직위) UNITAID 이사회 의장(2018~2019)
- (경력) 칠레 UN 제네바대표부 대사(2014~2018),  
UNICEF 제네바 아동인권 수석 고문(2014)



□ **UNITAID 이사회 신임의장**

- (성명) Marisol Touraine (마리솔 투렌)
- (직위) UNITAID 이사회 신임의장(2019~)
- (경력) 프랑스 보건복지부 장관 (2012~2017),  
프랑스 최고행정법원 행정재판관 (2017~)



□ **UNITAID 사무국 사무총장**

- (성명) Lelio Marmora (렐리오 마모라)
- (직위) UNITAID 사무총장(2014~)
- (경력) 글로벌펀드(2007~2014), 세계은행(2000~2007)



□ **UNITAID 사무국 대외협력국장**

- (성명) Mauricio Cysne (마우리시오 시스네)
- (직위) UNITAID 대외협력국장(2013~)
- (경력) UNAIDS(2007~2013), 글로벌펀드(2005~2007)

